

2022년 01월 1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5편 7~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90(통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요한일서 2장 28절 ~ 3장 10절(신약p.390)

2장 28~29절

28.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 1~10절

대한성서공회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 말씀선포 /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성경은 극단적인 양극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33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고, 누가복음 17장 33~35절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세상의 백성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다른 부류는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각각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1. 하나님의 자녀

-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부감과 예민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이요, 너무도 거룩한 나머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세상에 거하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렇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들은 비슷한 형태의 죄들을 의지적으로 반복해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에 동지를 틀게 놔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죄의 유혹은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 유혹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욱 강하게 올 것입니다.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때론 성도들도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심지어 베드로 역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은혜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가 유혹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한 의가 완성될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더욱 사모하며 죄와 묵묵히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의와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사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꾸며 주님을 만나는 날을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1~24절 말씀을 통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여전히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와 짝하며 살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과연 참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와 구원받는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라고 했고, 시편 51편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에서 돌이킨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2. 마귀의 자녀

-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에 속한 자들이라면 마귀의 자녀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으로 범죄를 지적합니다. 본문 6~8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태도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그들의 겉모습으로는 지극히 선하고 온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숨은 동기를 살펴보면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 속에서 살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결코 죄 가운데 머물러 마귀의 자녀와 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 속한 자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로지 마귀에게 속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 의롭고 거룩하게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살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빛 진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25(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폐 회 / 주기도문